

『指定 文化財 模造品 生産事業의 保護 育成을 爲한 小考』
(지정 문화재 모조품 생산사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소고)
-販賣育成方法을 中心으로
(판매육성방법을 중심으로)

朴 英 武

1. 序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 생산(生産)은 개정 실시된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과 관련(關聯)하여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가 국외(國外)로 불법(不法) 유출(流出)되는 것을 예방(豫防)하고 오랫동안 침체(沈滯)되었던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 개발(開發)의 학술적(學術的) 연구(研究)와 체계(體系)를 도모(圖謀)하며 현실적(現實的)으로는 기술(技術)을 연마(研磨)하면서 조상(祖上)들의 찬란(燦爛)했던 문화(文化)를 재현(再現)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意義)를 높이 평가(評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성(重要性) 중에서도 특히 「해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海外觀光客 誘致와 外貨獲得)」이 국가적(國家的) 시정목표(施政目標)가 되어있고 그 노력(努力)이 실제적(實際的)으로 고조(高潮)되고 있는 현시점(現時點)에서 관광시장(觀光市場)의 기념품(紀念品)부분(部分)과 직결(直結)되고 있는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의 생산(生産)을 보호(保護)하고 판매(販賣)를 육성(育成)하는 것은 민족고유문화(民族固有文化)를 국외(國外)에 선양(宣揚)함을 물론(勿論) 외화획득면(外貨獲得面)에서도 국가시책(國家施策)에 기여(寄與)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리적(實利的)인 중요성(重要性)을 인정(認定)해야 하는 것이다.

2. 本 論

(1) 국내(國內) 관광시장(觀光市場)의 상품현황(上品現況)

관광지(觀光地)의 상품(商品) 개선(改善)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문화재(文化財)가 국외(國外)로 불법유출(不法流出)되는 것과 함수적(函數的) 관계(關係)가 있다고 보며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이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의 기호(嗜好)에 단연코 어필할 것이며 기념품(紀念品)으로서 특성(特性)이 강(強)한 까닭에 판매(販賣) 육성(育成)에 있어서 문제점(問題點)이나 방법론(方法論)에 대하여 언급(言及)하

기 전에 국내(國內) 기념품(紀念品) 시장(市場)의 현황(現況)을 약술(略述)하여 참고(參考)로 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國內) 관광지(觀光地) 기념품(紀念品) 판매업(販賣業)에 종사(從事)하는 사람은 외래(外來) 관광객(觀光客)을 대하면서 부끄럽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기념(記念)될만한 사고 싶은 상품(商品)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다.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들은 우리 기념품시장(紀念品市場)에 쌓여있는 상품(商品)의 대부분(大部分)을 외면(外面)하고 있는 실정(實情)인데 이러한 문제점(問題點)들은 힘 안들이고 그 원인(原因)을 규명(糾明)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主義)를 기울여 보면 기념품(紀念品) 시장(市場)의 상품(商品)이 질(質)면에서 조잡(粗雜)하고 유치(幼稚)하며 지역적(地域的) 특색(特色)이 없는 것을 발견(發見)하게 되며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의 불만(不滿)을 변명(辨明)없이 받아 들여야 하겠다는 것도 인정(認定)하게 되는 것이다. 외래(外來) 관광객(觀光客)들은 한결같이 『한국(韓國) 기념품(紀念品)은 지역적(地域的) 특성(特色)도 , 고전성(古典性)도 없는 까닭에 더욱 흥미(興味)를 느낄 수 없다』고 하며 값이싼 상품(商品)이라 할지라도 사고 싶은 욕심(慾心)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행(旅行)중의 「레크레이션」 구실을 하는 「쇼핑」의 즐거움을 가질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의중(意中)을 털어놓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아쉬움(?) 같은 기분(氣分)을 충족(充足)시켜 보려고 여비(旅費)의 여유(餘裕)가 다소(多少)라도 있으면 관광지(觀光地) 어느 곳이나 있는 골동품(骨董品) 상점(商店)을 찾게 되고 매상(賣上)을 올리려는 상인(商人)의 욕심(慾心)은 문화재(文化財)의 국외반출(國外搬出)이 법(法)으로 금지(禁止)되어 있음을 인지(認知)하면서도 자유(自由)롭게 반출(搬出)된다고 속여서 거래(去來)를 성립(成立)시키는 까닭으로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가 불법거래(不法去來)되기도 하고 또는 출국시(出國時) 공식(公式)법절차(法節次)에서 적발(摘發)되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연출(演出)되는 것이 결국(結局)은 한국(韓國)에 대한 인식(認識)이 크게 나빠지는 사례(事例)까지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 면을 참작(參酌)해 볼 때 현재(現在)시행(施行)되고 있는 관계법조문(關係法條文)의 허실(虛實)을 논(論)하기에 앞서 법령(法令)에 위배(違背)될 수 있는 현실요건(現實要件)을 해결(解決)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현실요건(現實要件)이 완전(完全)히 배제(排除)될 때에 법령(法令)이 목적(目的)하는 바를 달성(達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認識)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재(文化財)를 보호(保護)하고 국가경제(國家經濟)에도 기여(寄與)하려면 관광시장(觀光市場)의 기념품(紀念品) 판매업(販賣業)에 종사(從事)하는 상인(商人)이나 관계당국(關係當局)이 협력(協力)하여 상품(商品)의 개량(改良)과 개발(開發)에 부단(不斷)한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념품(紀念品)의 개량개선(改良改善)과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의 함수(函數) 관계적(關係的)인 면을 고려(考慮)하여 그 종류(種類)가 많은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 생산(生産)의 개발(開發)을 활발(活潑)히 추진(推進)하고 그 판매(販賣)도 육성(育成)해서 기념품(紀念品) 시장(市場)의 상품(商品)을 질(質)과 양(量) 양면(兩面)에서 동일(同一)하게 향상(向上)시켜 실리적(實利的)으로는 외화(外貨)도 획득(獲得)하고 우리 문화재(文化財)보호(保護)도 그 실(實)을 득(得)해야 할 것이다.

(2)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의 생산(生産) 및 판매(販賣) 육성(育成)에 있어서 시정(是正)해야 할 점들.

가. 내적문제(內的問題)

당국(當局)의 허가(許可)를 얻어 모조품(模造品) 생산(生産)에 참가(參加)한 업자(業者)와의 대화(對話)를 통하여 느낀점중 시정(是正)되어야 하겠다고 판단(判斷)한 부분(部分)에 대하여 언급(言及)해 보려고 한다.

첫째,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 생산사업(生産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지 못하고 있는 업자(業者)가 있다는 것.

모조품(模造品) 생산사업(生産事業)에 참가(參加)한 업자(業者)의 자세(姿勢)가 중요(重要)하다고 생각(生覺)한다.

주무당국(主務當局)은 “왜” 어떠한 사회적(社會的) 필요성(必要性)에서 이 사업(事業)을 기획(企劃)하게 되었으며 나는 “왜” 이 사업(事業)에 참가(參加)하는가를 분명(分明)히 자각(自覺)하여야 하며 공익성(公益性)의 지대(至大)함을 참작(參酌)하여 당장 자기분(自己分)의 실리(實利)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판매(販賣)하고 생산품(生産品)의 질적(質的) 향상(向上)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본사업(本事業)의 중대성(重大性)을 인식(認識) 못한 탓인지 또는 사명의식(使命意識)의 결여(缺如) 때문인지 이 사업(事業)을 당국(當局)이 베푸는 특혜(特惠) 「케이스」 같은 것으로 착각(錯覺)하고 있는 현상(現象)이나 자금지원(資金支援)이라도 있을 때에는 생산(生産)에 전력(全力)할 것이며 일련(一連)의 지원(支援)이 없을 시(詩)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그칠 것이라는 태도(態度)는 시정(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조품(模造品)의 예술성(藝術性)에 도취(陶醉)되어 그 생산(生産)에만 정열(情熱)을 쏟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姿勢)는 아니라고 본다.

양심적(良心的)인 업자(業者)들은 본사업(本事業)의 중요성(重要性)도 폭(幅)넓게 이해(理解)하고 있고 사명의식(使命意識)도 투철(透徹)하나 일련(一連)의 오류(誤謬)를 결과적(結果的)으로 범(犯)하는 경향(傾向)을 감지(感知)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본사업(本事業)에 있어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는 경제성(經濟性)을 무의식중(無意識中) 소홀(疎忽)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良心的)인 업자(業者)들의 약점(弱點)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상업적(商業的) 소양(素養)보다는 미(美)의 탐구(探究)에 더 충실(充實)하고 있으며 그것에 심취(心醉)하여 어떤 구상(構想)이 여러 과정(過程)의 난관(難關)을 극복(克服)하고 현실화(現實化)되었을 때 『70노인(老人)이 만년(晩年)에 외동아들을 얻는』 그런 심정(心情)이 되어 물품생산과정(物品生産過程)에만 치중(置重)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업자(業者)의 태도(態度)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사업(本事業)이 예술가(藝術家)의 창작활동(創作活動)과는 다른 성격(性格)을 띄고 있음을 모두가 주지(周知)하는 사실(事實)이라고 할 진데 시장개척(市場開拓)을 위한 준비(準備)나 시장생태(市場生態)의 파악(把握)을 철저(徹底)히 하여 각부분(各部分)의 문제점(問題點)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하고 그것에 대응(對應)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강구(講究)함이 바람직한 태도(態度)이겠는데 그러한 노력(努力)이 경시(輕視)되고 있음은 각성(覺醒)을 촉구(促求)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以上) 간단(簡單)한 언급과정(言及過程)에서 표출(表出)된 문제점(問題點)을 해결(解決)하고 이 사업(事業)을 성공(成功)으로 인도(引導)하기 위하여는 주무당국(主務當局)이 과감(果敢)하고 성의(誠意)있게 업자(業者)를 개발(開發)하고 후원(後援)하면서 긴 안목(眼目)으로 시책(施策)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生産)과 판매(販賣)를 보호(保護)육성(育成)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를 가늠하는 분기령(分岐嶺)이 되리라고 믿어진다.

나. 외적문제(外的問題)

외적(外的) 문제(問題)라 함은 본사업(本事業)의 2次단계(段階)(실험적(實驗的)인 생산과정(生産過程)이 끝나고 본격적(本格的)인 생산(生産)에 들어가 상품(商品)이 시장(市場)에 나오는 시기(時期)를 2次단계(段階) 했음)에서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의 일선업무(一線業務)를 대행(代行)한 점포(店鋪)가 없어서 독립시장(獨立市場)을 형성(形成)하지 못하고 기존상인(既存商人)들에게 상품(商品)을 공급(供給)하게 될 때 발생(發生)할 수도 있는 사태(事態)를 언급(言及)해 보는 것인데 일별(一瞥)하면 모조품(模造品) 자체(自體)가 유물적(遺物的) 성격(性格)이 강하여 이의 취급(取扱)을 희망(希望)하는 사람들의 거의가 골동품(骨董品) 판매업자(販賣業者)이거나 과거(過去)에 종사(從事)했던 사람들일 것이 분명(分明)하며 이들은 지금(只今)도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모조품(模造品)보다 질(質)이 못한 물품(物品)을 구득(求得)하여 화학약품(化學藥品) 처리(處理)와 일부분(一部分)을 파손(破損)했다가 다시 수리(修理)하여 진품(眞品)을 가장(假裝)하고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을 상대(相對)로 사기적(詐欺的)인 상행위(商行爲)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實情)인데 그 질이 우수(優秀)한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의 물품(物品)을 대량(大量)으로 공급(供給)받을 수 있게 될 때 그들의 행□의 후유증(後遺症)을 어떻게 처리(處理)할 것인가도 심각(深刻)한 문제(問題)로 대두(擡頭)되는 것이다. 이렇듯 본사업(本事業)의 핵(核)이 될 독립시장(獨立市場)을 형성(形成)치 못할 때 전술(前述)한 상인(商人)들의 행패등(行悖等)을 규제(規制)할 묘책(妙策)이 없으며 고유문화재(固有文化財)를 국외(國外)에 선양(宣揚)한다는 것이 하나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당국(當局)의 절실(切實)하고 선량(善良)한 본사업(本事業)의 기획(企劃)이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될 위험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3. 판매(販賣) 육성(育成)을 爲한 당국(當局)의 지원(支援)

전술(前述)한 난점(難點)들을 참작(參酌)하고 본사업(本事業)의 특수성(特殊性)을 고려(考慮)할 때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의 독립시장(獨立市場)을 형성(形成)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切實)한 급선무(急先務)라고 판단(判斷)되어지는 것이다. 현실적(現實的)인 면에서 기념품(紀念品) 시장(市場)의 생태(生態)를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위치(位置)에 있는 모조품(模造品)업자의 일선업무(一線業務)를 대행(代行)하고 독립시장(獨立市場) 형성(形成)의 핵심(核心)이 될 모점(母店)을 설치(設置)하여 기념품시장(紀念品市場)의 생태(生態)를 파악(把握)할 수 있는 인사(人士)를 택(擇)하여 판매(販賣)와 국내시장개척(國內市場開拓)을 위임(委任)하는 것이 중요(重要)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운영면의 실제(實際)는 언급(言及)을 생략(省略)하기로 한다.

ㄱ. 독립시장(獨立市場) 형성(形成)의 필요성(必要性)

독립시장(獨立市場)이란 거래과정(去來過程)에서 외부(外部)의 압력(壓力)을 받지 않고 자율적(自律的)으로 활동(活動)할 수 있는 상태(狀態)를 항상(恒常) 유지(維持)하자는 의미(意味)의 용어(用語)이다. 즉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에서 생산(生産)되는 지정문화재모조품(指定文化財模造品)을 기존상인(既存商人)들의 주문(注文)에 응(應)해서 팔고 사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집행부(中央執行部) 같은 역(役)을 할 모점(母店)(本店)을 설치하고 모점(母店)을 중심(中心)으로 자점(子店)(支店)을 構成해서 이 구성체(構成體)를 통해서만 상품(商品)의 유통(流通)을 (거래(去來))촉진(促進)하자는 것이다. 부연(敷

衍)해 보면 모조품(模造品)의 특수성(特殊性)을 고응(考應)해서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의 출입(出入)이 많은 전국(全國)의 등록(登錄)된 관광(觀光)호텔을 조직적(組織的)으로 연결(連結)시켜서 본모조품(本模造品) 판매시장(販賣市場)을 형성(形成)하자는 것인데 주목적(主目的)은 기존상인(既存商人)의 기호(嗜好)에 영합(迎合)하기 쉬운 작업자(各業者)들의 弱點을 보호(保護)하고 작업자(各業者)들의 분산(分散)(개인행동(個人行動))을 방지(防止)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사업(事業)의 대외적(對外的) 공신력(公信力) 획득(獲得)과 「P. R」에도 주의(主義)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①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 → ② 모점(母店) → ③ 자점(子店) 이런 유기적(有機的)인 관계(關係)가 형성(形成)되므로 하여 상품(商品)유통과정(流通過程)의 질서(秩序)가 정연(整然)할 것이며 유통과정(流通過程)의 질서(秩序)가 정연(整然)할때만이 본사업(本事業)의 순수성(純粹性)을 살리고 정통성(正統性)을 확보(確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시장형성(獨立市場形成)에 당국(當局)의 지원(支援)이 요청(要請)되는 것이다.

ㄴ. 모점(母店)의 역할(役割)

모점(母店)이란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로부터 공급(供給) 받은 물품(物品)을 일괄적(一括的)으로 관리(管理)하고 판매(販賣)하면서 국내시장개척(國內市場開拓)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전초기지(前哨基地)라고 하는 것이 좋겠으며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의 일선업무(一線業務)를 대행(代行)하는 기구(機構)라고 정의(定義)하고 싶다.

본사업(本事業)을 대중(大衆)에게 보다 시각적(視覺的)으로 「P. R」 하고 인식(認識) 시킴과 동시(同時)에 거래상(去來上)의 실리(實利)를 도모(圖謀)하기 위하여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의 출입(出入)이 많은 「반도」 「조선」 두 호텔과 「반도아케이트」 등에 모점(母店)을 설치(設置)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 제의(提議)는 「P. R」 이나 실리면(實利面)에서도 중요(重要)한 의의(意義)가 있다고 하겠으나 긴 안목(眼目)으로 고찰(考察)할 때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모조품(模造品)의 생산판매사업(生産販賣事業)이 순조(順調)롭게 추진(推進)되고 질적(質的)으로나 양적(量的)으로 완벽(完璧)하다고 할 상태(狀態)에 도달(到達)하게 되면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이거나 일반시민(一般市民)이거나 모점(母店)에 들리면 한국(韓國)의 문화재(文化財)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고 여유(餘裕)있게 감상(鑑賞)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인(萬人)이 호감(好感)을 갖게 될 것이며 한국관광지(韓國觀光地)의 새로운 명소(名所)로 등장(登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모점(母店)의 참 가치(價値)가 숨겨져 있다고 하겠다.

모점(母店) 설치(設置)의 작업(作業)이 끝난 뒤에는 여기서 얻은 경험(經驗)을 활용(活用)하여 국내시장(國內市場) 확보(確保)를 위한 자점설치작업(子店設置作業)을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자점(子店)은 국내명승지(國內名勝地)에 산재(散在)한 등록(登錄)된 관광(觀光)호텔을 주대상(主對象)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作業)이 완료(完了)되고 생산(生産)과 판매(販賣)가 균형(均衡)을 잡게 된다면 연합법인체(聯合法人體)의 각생산자(生産者)들은 자점(子店)이 위치(位置)한 지역적(地域的) 특성(特性)을 고응(考應)하고 문화재모조품(文化財模造品)의 다양성(多樣性)도 최대한(最大限) 살려서 생산(生産)개발(開發)에 박차(拍車)를 가해야 할 것이다.

생산(生産)개발(開發)에 부응(浮應)하여 판매사업(販賣事業)도 활발(活潑)하여 진다면 모조품(模造品)사업(模造品事業)의 성공(成功)도 낙관(樂觀)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기념품시장(韓國紀念品市場)에 숨구멍을 뚫어준 선구자적역할(先驅者的役割)까지도 훌륭히

수행(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로서는 본사업(本事業)의 성공(成功)을 낙관(樂觀)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면(實際面)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難題)가 도사리고 있으니 독립시장형성(獨立市場形成)을 위하여 급선조건(急先條件)인 모점(母店)을 설치(設置)할 공간(空間)이 그것이다.各업자(業者)들이 시험생산(試驗生産) 과정(過程)에서 소비(消費)한 자금(資金)도 적지 않을 것이고 소비(消費)된 자금(資金)에 대한 반대급부적(反對給付的) 보장(保障)이나 약속(約束)이 당국(當局)에서 없다고 할 때 공간(空間)해결(解決)을 위한 재투자(再投資)를 망설일 것이 분명(分明)하며 현재(現在)와 같이 사업자체(事業自體)의 별다른 진전(進前)이 없다면 의기소침(意氣銷沈)해져서 본사업(本事業)에 대하여 회의(懷疑)를 품게도 될 것이니 업자(業者)들의 의욕(意慾)도 북돋우고 이 사업(事業)의 성공(成功)을 바라는 뜻에서 모점설치(母店設置)에 필요(必要)한 공간(空間)의 해결(解決)을 주무당국(主務當局)이 해 주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問題)등을 해결(解決)할 별도예산(別途豫算)이 없다고 할 때 본론지(本論旨)의 계획(計劃)을 용납(容納)할 수 없다고 하겠는데 당국(當局)의 적극(積極)적인 주선(周旋)만 있다면 예산(豫算)이 없어도 공간(空間)해결(解決)이 가능(可能)하겠기 때문에 그 방법(方法)을 기술(技術)해 보겠다.

모점(母店) 설치(設置)에 필요(必要)한 공간(空間)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반도」 「조선」 두 호텔은 다행(多幸)히 국영업체(國營業體)인 까닭으로 희망(希望)을 가지는 것이다.

주무당국(主務當局)과 관광공사간(觀光公社間)에 폭(幅)넓은 이해(理解)와 협조(協助)만 있다면 모점(母店) 설치(設置)를 위해서 필요(必要)한 공간(空間)이 해결(解決)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공사(觀光公社)가 운영(運營)하는 「반도호텔」에는 지방(地方) 토산물(土産物)의 개발육성(開發育成)을 목표(目標)로 단기간(短期間) 무료(無料) 대여(貸與)하는 점포(店鋪)가 있음)

기술(既述)한 제(諸) 방법론(方法論)중 어떤 부분(部分)은 행정력학적(行政力學的)인 문제(問題)나 행정기술적(行政技術的)인 면에서 지식(知識)이 전무(全無)한 필자(筆者)가 본사업(本事業)의 가능성(可能性)만을 추구(追求)하려는 집착(執着) 때문에 오류(誤謬)를 범(犯)하게 된 논지(論旨)도 있을 것으로 안다. 다만 그것이 극(極)히 부당(不當)하고 불법적(不法的)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자(筆者)와 같은 견지(見地)에서 가능성(可能性)을 추구(追求)해 봄도 헛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역경(逆境)을 극복(克服)하고 모점(母店)의 설치(設置)를 성공적(成功的)으로 마쳤다고 하면 우리는 자점설치(子店設置)에 다시 한번 노력(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점(子店) 설치(設置)역시(亦是) 주무당국(主務當局)이 교통부(交通部)의 협조(協助)를 얻어 등록(登錄)된 관광(觀光)호텔을 대상(對象)으로 본사업(本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을 이해(理解)인식(認識)시키고 협조(協助)를 받아서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이나 그 반응(反應)이 좋지 않은 처소(處所)에 대하여는 어떤 강제규정(強制規定)을 두어서라도 지정(指定) 문화재모조품(文化財模造品) 일체(一切)를 취급(取扱)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의 진열(陳列)과 선전(宣傳)을 부지런히 해 가는 가운데 모조품(模造品)의 「봄」을 조성(造成)해서 판매활동(販賣活動)의 실(實)을 얻고 고유문화재(固有文化財)의 해외선전(海外宣傳)과 외화획득(外貨獲得)의 새 사업(事業)으로 육성(育成)해야 되겠다.

4. 결 론(結論)

지금까지 써온 글이 학문적(學問的) 전문지식(專門知識)도 없고 이론적(理論的) 체계(體系)도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나 관광지(觀光地)의 일선시장(一線市場)에서 기념품(紀念品)을 취급(取扱)하면서 수년(數年)동안 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을 對할 때마다 느껴야 했던 서러움(?) 때문에 개선(改善)되어야 한다고 절감(切感)했던 현실문제(現實問題)들을 모조품사업(模造品事業)과 관련(關聯)시켜 부족(不足)한대로 기술(記述)하여 본 것이며 이 사업(事業)을 위한 참고(參考)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다.

우리 관광지(觀光地)의 기념품시장(紀念品市場)이 활발(活發)히 운영(運營)될 때 국가경제(國家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이 크리라는 것을 아는 인사(人士)들은 국내(國內) 기념품시장(紀念品市場)의 체질개선(體質改善)을 위한 「아이디어」도 있고 의욕(意慾)도 있으나 자신(自身)들의 현실적(現實的)인 실력(實力)이 없음을 잘 아는 까닭에 엄두조차도 내보지 못한채 미흡한 상태에서 현상유지(現狀維持)에 급급(急急)한 실정(實情)인 것이다.

이러한 곤욕(困辱)을 감당(堪當)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급(時急)한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고 애태워 왔던 것인데 모조품사업(模造品事業)을 바라보는 관점(觀點)이 당국(當局)과 근본적(根本的)인 점에서 차이(差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당국(當局)이 주도(主導)하는 모조품사업(模造品事業)의 실리성(實利性)에 공명(共鳴)하는 까닭으로 충심(衷心)으로 이 사업(事業)의 성공(成功)을 기도(祈禱)하는 것이다.



국보(國寶) 第91號 도제기마인물상(陶製騎馬人物像) <모조품(模造品)>



국보(國寶) 第60號 청자비룡형주자(靑瓷飛龍形注子) <모조품(模造品)>